

'온 가족 함께하는 즐거운 민속놀이'

12~15일 전주박물관서
한가위 민속놀이마당 개최

국립전주박물관은 2019년 한가위 민속놀이 마당을 오는 12~15일(추석 당일 제외)까지 전주박물관 본관 및 문화사랑방, 옥외뜨락에서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의 고유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민속놀이를 즐기고 추억의 놀이를 하면서 세대 간에 단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상시 운영하고,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명절 기간 동안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놓을 계획이다.

상시 체험 부스에는 대형 윷놀이, 연날리기, 투호 놀이, 활쏘기 등을 할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 체험 마당'과 딱지치기, 공기놀이, 비석 치기, 풍선 던지기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추억의 놀이마당'을 운영한다.

또 지게 지기, 짚구질하기, 맷돌 돌리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옛 생활 도구체험'과 북, 장구, 팽과리, 징, 소고 등으로 경쾌한 우리 가락을 뽐낼 수 있는 '사물놀이체험'을 운영해 전통문화와 친근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다.

여기에 양반들의 고유 놀이인 쌍륙놀이(주사위 놀이)와 선비들이 즐기던 경연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민속놀이 경연대회 '놀이마당



국립전주박물관에서 2019년 한가위 민속놀이마당을 오는 12~15일까지 연다.

오감'도 운영하여 단체 겨루기 놀이의 진면목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당일 체험 부스에는 불거리와 만들기 등을 마련하여 행사의 재미를 더한다.

12일에는 35사단 장병들이 펼치는 화려한 '군악대 공연'과 '전통 투각등'을 만들 수 있고, 가족영화 '몬스터 호텔 3'를 상영한다.

이어 14일에는 국악의 묘미를 엿볼 수 있는 '국악 여행' 공연과 전통 손 제기 만들기 체

험, 가족영화 '인트레더블 2'를 상영하고, 15일은 백제 금관 만들기와 가족영화 '신비아파트 44'를 상영할 예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한가위를 맞아 박물관을 찾은 시민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에게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잊혀가는 세시풍속에 관한 관심과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심심한 평일 오후 신나는 무주반딧불축제장으로~

2019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이 오늘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전북도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들과 문화를 나눈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문화공감연천동소리의 '난타'와 제이유(JU)창극발전소의 '창극과 타령', 뮤지컬수컴퍼니의 '어쿠스틱 트로트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무주군 문화관광과 김정미 문화예술 팀장은 "축제 기간을 맞아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라며 "2019 신나는 예술버스와 함께 반딧불축제의 재미를 만끽해보시라"고 전했다.

8일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입실팔경농악보존회와 함께 하는 전통연희극 '히히랑락'이 펼쳐진다.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등나무운동장 무대에



올려질 이 공연에서는 농촌마을 풍경과 백중상머슴 놀이, 상여행렬등을 담은 내용을 감상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23회 무주사진가협회 회원전이 9월 한 달 동안 전북 무주읍 김현태문학관 1층 로비에서 열린다.

무주 대표관광지의 사계를 한눈에

무주반딧불축제서 '무주 사진가협회전' 개막

무주반딧불축제를 기념하기 위한 제23회 무주사진가협회 회원전이 9월 한 달 동안 전북 무주읍 김현태문학관 1층 로비에서 열린다.

무주군과 무주 반딧불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무주사진가협회(회장 이윤승)가 주관해 열리는 사진전에는 무주읍내 풍경을 비롯해 뒷섬마을 금계곡, 설다리행렬, 한풍투의 봄, 국립공원 덕유산·적상산의 사계 등 무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의 사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무주읍내와 반딧불 축제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작품과 화려한 덕유산 등 담은 풍경 사진 등 40여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1997년 사진동우회로 창립된 무주사진가협회는 23년의 전통을 가진 민간 주도의

사진 단체로 35명의 회원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각종 전시회와 공모전은 물론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재능기부 활동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해마다 무주의 자연과 명소를 사진 속에 담아 무주관광 홍보 사진전시회를 펼쳐 주시는 덕분에 무주 반딧불축제와 더불어 무주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무주사진가협회 이윤승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반딧불축제에 무주의 관광지를 알리는 사진전을 갖게 돼 남다른 자부심이 있다"며 "자연의 나라 무주에서 축제도 즐기시고 사진전도 감상하면서 초기의 정취를 즐겨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농악보존회, 고창농악 문화재발표회 개최

(사)고창농악보존회(회장 구재연)가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 7-6호 고창농악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제21회 고창농악 문화재발표회(문굿)'를 오는 8일 오후 1시부터 고창군 아산면 주진마을(우천시 고창군 성송면 고창농악전수관 대극장)에서 진행한다.

1996년을 시작으로 올해 21회째를 맞이하는

고창농악 문화재발표회는 2006년 이후 13년 만에 고창농악 '문굿'의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재현한다.

문굿은 걸궁패가 걸궁을 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갈 때 마을 입구에서 치는 곳이다. 곳패의 기량을 시험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엄격한 절차와 뛰어난 예능을 선보인다.

이번 문화재발표회에서는 문굿으로 시작하여 단상굿, 매굿, 판굿, 도둑잡이굿까지 풍장굿을 제외한 고창농악의 전 바탕을 연행한다.

구재연 (사)고창농악보존회장은 "영무장지역에서 뛰어난 상쇠로 알려진 '박성근' 선생님이 거주했던 고창의 주진마을 현장에서 올해 고창농악 문화재발표회를 진행하게 되어 뜻깊은 마음이다"며 "이번 발표회를 위해 이 수자들을 비롯한 보존회원들이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익산예술의전당, '쉐어스테이지-무대를 공유하다' 공연

익산예술의전당은 지역예술인 지원 프로젝트인 '쉐어스테이지-무대를 공유하다' 자체 제작공연을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무대에 올린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생활문화 콘텐츠 활성화 프로그램에 선정된 이번 공연은 장르별 프로와 아마추어, 멘토와 멘티 등의 연결 고리를 찾아 여러 아티스트가 한 무대에 서는 독특한 공연이다.

특히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아마추어들은 프로와 함께 좋은 무대 환경에서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나아가 자신의 삶에 대

한 동기부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날인 6일에는 '오늘도 춤바람'을 주제로 제이블랙, 윈더크루, 익산의 춤신출왕 박지희와 멘토, 동그라미댄스동아리, 푸루메리아홀라, 리티댄스, 킴덤이 출연하여 스트릿댄스, 케이팝댄스, 홀라댄스 등을 공연한다.

둘째 날인 7일에는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주제로 쇼콰이어 하모나이즈, 소리동행 앙상블, 보컬그룹 아이비, 남성합창단 좋은친구들, 테너 임태형과 멘토가 출연해 영화 OST, 뮤지컬 넘버, 오페라 아리아, 합창, 오카

리나를 합주한다.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시는 음악이 되어'를 주제로 1부는 포크그룹 평가의 7080 콘서트, 2부는 악기연주, 무용, 노래 등이 어우러지는 공연 시나송이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객들이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별하지 않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공연 관람이 좋은 경험이 되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늘고 악기 연주나 합창 등 공연예술 분야를 더욱 즐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네이버 예약을 통해 미리 예매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859-3254)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정영원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